

EDU-11 한눈에 보기

가족의 돈과 권한을 투명하게 정하고 사망·질병·판단능력 저하 때 필요한 기록을 준비한다.

왜 배우나요?

가족의 돈은 믿음만으로 관리하지 않고 권한과 기록을 나누어야 합니다

필수개념

- 개인재산과 공동재산: 누가 소유하고 누가 관리할 권한이 있는지를 구분한 재산입니다.
- 대리: 본인을 대신해 정해진 범위의 일을 할 권한입니다.
- 후견: 의사결정이 어려운 사람의 권리와 생활을 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- 상속: 사망한 사람의 재산상 권리와 의무가 법에 따라 이어지는 일입니다.
- 디지털 유산: 사망 뒤 남는 계정·구독·전자기록·디지털 자산과 처리 권한입니다.

이 과제를 네 문장으로 이해하기

- 가족의 금융생활에는 재산뿐 아니라 채무·보증·세금·디지털 계정도 함께 포함됩니다.
- 상속은 재산만 받는 일이 아니므로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확인한 뒤 승인·한정승인·포기를 판단합니다.
-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의 돈을 임의로 관리할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.
- 판단능력 저하나 사망에 대비해 위임·후견·유언·디지털 기록의 위치와 권한을 미리 정합니다.

핵심 4문장

- 가족이라는 이유로 계좌·비밀번호를 공유하면 책임과 피해가 불분명해진다.
- 상속은 예금뿐 아니라 대출·보증·세금과 같은 의무도 함께 살펴야 한다.
- 판단능력이 떨어진 뒤 급히 만든 위임은 분쟁 위험이 크다. 건강할 때 범위와 감시 방법을 정한다.
- 디지털 유산 목록은 만들되 비밀번호 자체를 평문으로 공유하지 않는다.

새로 확인할 생활 주제

- 보증·연대보증·가족 간 돈거래도 계약입니다: 서명 전에 독립된 법률상담을 받고, 가족 간 거래도 금액·상환일·이자·증빙을 서면으로 남깁니다.

판단 5단계

- 공동비의 금액·납부일·담당·열람권을 합의한다.
- 보증·증여·명의 이전은 서명 전 독립된 상담을 받는다.
- 사망 시 금융거래·채무·보험·세금 조회 절차를 공식 창구에서 확인한다.
- 대리·후견 권한은 대상 업무·기간·보고 방법을 문서화한다.
- 디지털 계정은 목록·복구수단·처리 희망·보관 위치를 분리한다.

도움 요청

추가 손실을 멈추고 사실·증거·요구·기한을 적어 공식 기관에 문의한다.

내용 기준 2026-08-24 · 다음 점검 2026-11-20 · 2026년 8월 제1판